



# 2023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동향분석실



본 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은 집필자 개인의 의견이며 우리원의 공식 의견이 아님을  
밝혀 둔다.



## 목 차

• 요약	1
I. 경제·금융 환경	3
1. 세계경제	3
2. 국내경제	7
3. 금융시장	9
4. 2023년 국내경제 전망	12
5. 경기 변화와 보험산업	13
II. 보험산업 주요 동향	15
1. 2022년 상반기 성장성과 수익성	15
2. 생명보험 장기 성장성 진단	16
3. 생명보험 종목별 동향	16
4. 손해보험 종목별 동향	22
III. 2023년 보험산업 전망	26
1. 보험산업 보험료 전망 개요	26
2. 보험산업 보험료 전망	29
3. 생명보험	33
4. 손해보험	37
5. 보험권 퇴직연금	42
IV. 경영 및 정책 과제	43
1. 보험산업 진단	43
2. 경영·정책 과제	46

## 표 차례

〈표 I-1〉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	6
〈표 I-2〉 국내 주요 기관 전망	13
〈표 II-1〉 생명보험 종목별 수입보험료 증가율	17
〈표 II-2〉 연금보험 위축요인	21
〈표 II-3〉 손해보험 종목별 원수보험료 증가율	22
〈표 II-4〉 일반손해보험 종목별 원수보험료 증가율	24
〈표 III-1〉 생명보험 수입보험료 전망	34
〈표 III-2〉 손해보험 원수보험료 전망	38
〈표 III-3〉 장기 손해보험 원수보험료 전망	38
〈표 III-4〉 일반손해보험 원수보험료 전망	41

## 그림 차례

<그림 I-1> OECD 주요국 경제성장률	3
<그림 I-2> OECD 경기선행지수	3
<그림 I-3> 세계 무역 규모 증가율	4
<그림 I-4> 세계 산업생산 증가율	4
<그림 I-5> 글로벌 GDP 대비 무역 규모	5
<그림 I-6> OECD 주요국 소비자물가 상승률 추이	6
<그림 I-7> 주요국 기준금리 변화	6
<그림 I-8> 미국 경제성장률 전망치	6
<그림 I-9> 미국 장단기 금리 추이	6
<그림 I-10> 국내 분기별 경제성장률	7
<그림 I-11> 동행지수 및 선행지수 순환변동치	7
<그림 I-12> 민간소비 증가율	8
<그림 I-13> 소비자 심리지수 및 물가지수	8
<그림 I-14> 설비투자 및 건설투자 증가율	8
<그림 I-15> 재화 수·출입 증가율	8
<그림 I-16> 국내 기준금리 및 국고채 금리 추이	9
<그림 I-17> 주요 투자은행 국내 금리전망	9
<그림 I-18> 한국·미국 소비자물가 상승률 추이	10
<그림 I-19> 주가지수 및 거래금액 추이	11
<그림 I-20> 주식시장 고객 예탁금 및 신용잔고 추이	11
<그림 I-21> 원/달러 환율, 달러인덱스 추이	12
<그림 I-22> 해외 주요 투자은행 환율전망	12
<그림 I-23> 미국과 유로지역 경기침체 확률	14
<그림 I-24> 경기침체 시 보험산업 영향	14
<그림 II-1> 생명보험 수입보험료	15
<그림 II-2> 손해보험 원수보험료	15
<그림 II-3> 생명보험 당기순이익	15
<그림 II-4> 손해보험 당기순이익	15
<그림 II-5> 생명보험 수입보험료 성장률 추이	16
<그림 II-6> 30~40대 인구, 65세 이상 인구, 1인 가구 추이	16

〈그림 II-7〉 저축보험 수입보험료	18
〈그림 II-8〉 정기예금 금리 및 공시기준이율 추이	18
〈그림 II-9〉 변액보험 초회보험료	19
〈그림 II-10〉 주가지수와 변액보험 수입보험료	19
〈그림 II-11〉 보장성 수입보험료	20
〈그림 II-12〉 종신 및 질병·건강보험 초회보험료 증가율	20
〈그림 II-13〉 연금보험 수입보험료	21
〈그림 II-14〉 보험산업 연금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적·전략적 대응방안	21
〈그림 II-15〉 장기 손해보험 원수보험료	23
〈그림 II-16〉 장기 보장성보험 초회·계속보험료 증가율	23
〈그림 II-17〉 자동차보험 원수보험료	23
〈그림 II-18〉 자동차 등록대수 추이	23
〈그림 II-19〉 일반손해보험 원수보험료	24
〈그림 II-20〉 배상책임보험 주요 종목별 보험료	25
〈그림 II-21〉 배상책임보험 주요 종목별 성장률	25
〈그림 II-22〉 배상책임보험 시장 확대 요인	25
〈그림 II-23〉 배상책임보험 의무화 추이	25
〈그림 III-1〉 보험료 전망 개요	27
〈그림 III-2〉 보험료 전망 개요	28
〈그림 III-3〉 경기침체의 추가적 영향 고려의 필요성	28
〈그림 III-4〉 보험료 증가율 전망	29
〈그림 III-5〉 보험료 규모 전망	29
〈그림 III-6〉 초회보험료 증가율 전망	30
〈그림 III-7〉 초회보험료 규모 전망	30
〈그림 III-8〉 종목별 초회보험료 전망	30
〈그림 III-9〉 보험부채 평가 방식 변경	31
〈그림 III-10〉 보험수익 인식 방법 변경	31
〈그림 III-11〉 생명보험 개인보험 위험보험료 추정 및 전망	32
〈그림 III-12〉 장기 손해보험 위험보험료 추정 및 전망	32
〈그림 III-13〉 보험료 성장률 변화 비교(2014~2021년 vs. 2022(E), 2023(F))	33

〈그림 III-14〉 생명보험 수입보험료 규모와 증가율 전망	34
〈그림 III-15〉 생명보험 종목별 수입보험료 규모 전망	34
〈그림 III-16〉 보장성보험 수입보험료 전망	35
〈그림 III-17〉 일반저축성보험 수입보험료 전망	36
〈그림 III-18〉 변액저축성보험 수입보험료 전망	36
〈그림 III-19〉 손해보험 원수보험료 규모와 증가율 전망	37
〈그림 III-20〉 손해보험 종목별 원수보험료 규모 전망	37
〈그림 III-21〉 장기 상해·질병 원수보험료 전망	39
〈그림 III-22〉 장기 운전자·재물·통합 원수보험료 전망	39
〈그림 III-23〉 장기 저축성 원수보험료 전망	40
〈그림 III-24〉 자동차보험 원수보험료 전망	40
〈그림 III-25〉 일반손해보험 원수보험료 전망	41
〈그림 III-26〉 퇴직연금 수입보험료 전망	42
〈그림 III-27〉 사외적립비율 확대 및 수입보험료 증가율 전망	42
〈그림 IV-1〉 소비자물가 상승률 및 대미환율 추이	43
〈그림 IV-2〉 한은 기준금리와 미 연준 정책금리 추이	43
〈그림 IV-3〉 국내 금융기관의 외환포지션	44
〈그림 IV-4〉 부동산 관련 기업대출 비중	44
〈그림 IV-5〉 IFRS17 도입 이후 물가와 금리 영향	45
〈그림 IV-6〉 탈탄소, 보험회사 인식과 실행 현황	45
〈그림 IV-7〉 1인 및 2인 가구 구성의 변화	46
〈그림 IV-8〉 소득분위별 보험료지출 비중 변화	46
〈그림 IV-9〉 보험산업의 복합 불확실성 대응	46
〈그림 IV-10〉 보험회사 자본 구성	47
〈그림 IV-11〉 실손보험 합산비율과 판매회사 추이	47
〈그림 IV-12〉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48



## Insurance Industry Outlook and Agenda in 2023

In 2023, financial market volatility is expected to last with high inflation, and the slowdown in global economic growth that began in the second half of 2022 is likely to be deepened. Since it would be challenging to bring inflation down in the short run, interest rates and stock markets are highly expected to remain volatile. Thus, the Korean economy in 2023 could worsen than expected, affecting an adverse effect on the insurance industry's growth, profitability, and long-term growth base. Also, high inflation is an unfavorable factor for the insurance industry.

Total insurance premiums in 2023 are projected to increase only 2.1 percent year-on-year as the growth of savings insurance and investment-type products is slowing due to growing uncertainties in the financial markets. Life insurance premiums are expected to increase only 0.3 percent in 2023, despite the base effect created by a sharp decline(-3.8 percent) in 2022. Protection-type insurance premiums are projected to grow 2.3 percent year-on-year, mainly from renewal premiums, even though the demand for whole-life insurance is decreasing. General savings insurance premiums are expected to fall 2.0 percent due to the insurance industry's declining competitiveness in interest rates compared to other financial sectors. Variable savings insurance is expected to decrease 6.9 percent year-on-year due to reduced demand affected by the increasing volatility in the stock market. Non-life insurance premiums are forecast to slow down to 5.6 percent in 2022 and 3.9 percent in 2023. Long-term non-life insurance premiums are projected to increase 4.8 percent year-on-year, mainly from injury and disease insurance. Auto insurance

premiums are expected to rise 1.1 percent resulting from adjusting insurance premiums of insurers and expanding online channels in the first half of 2022. General insurance premiums are expected to increase 5.9 percent year-on-year, led by the growth of the liability insurance market and the expansion of coverages for emerging risks.

With introducing an IFRS17, risk premiums will likely be an essential indicator representing the business growth of insurance companies. In 2023, the growth rate of life insurance and long-term non-life insurance risk premiums are expected to be 0.9 percent and 5.5 percent, respectively, showing slowed growth compared to the previous year. The growth rate of risk premiums is slightly higher than that of life(non-life) insurance premiums(written).

The insurance industry is likely exposed to economic uncertainty in the short term and institutional and demand uncertainty in the long term. Against a worsening environment, the insurance industry must bolster market risk management and improve the business model's scalability, dynamic, and sustainability. First, in response to economic uncertainties in high inflation and high exchange rates, it is required to secure the stability of the insurance supply and strengthen the role of long-term investors who contribute to stabilizing the economy and financial markets. Second, the insurance industry needs to shift to a sustainable and scalable business model through market innovation to respond to new norms(e.g., IFRS17/ESG, and changes in consumer composition such as an increased proportion of single or two-person households).

## 요약

2023년에도 인플레이션 확대에 따른 금융시장 변동성이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2022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경기둔화 추세가 2023년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인플레이션의 단기 해소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2023년에도 금리 및 주식시장 변동성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국내 경기둔화가 심화되는 경우 보험산업의 성장성과 수익성뿐 아니라 장기 성장 기반을 약화시키는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높은 인플레이션도 보험산업에 부정적이다.

2023년 보험산업 수입보험료는 금융환경 불확실성 확대에 인한 저축 및 투자형 상품의 실적 둔화 등으로 전년 대비 2.1% 증가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생명보험 수입보험료는 2022년 큰 폭(-3.8%) 감소에 따른 기저효과에도 불구하고 2023년 0.3% 증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보장성보험은 종신보험 신규 수요 축소에도 갱신 보험료 중심으로 전년 대비 2.3% 성장이 전망된다. 일반저축성보험은 금리 경쟁력 약화로 인한 저축보험 실적 둔화로 전년 대비 2.0% 감소가 전망되며, 변액저축성보험은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 전망에 따른 신규 수요 축소로 전년 대비 6.9% 감소가 전망된다. 손해보험 원수보험료는 2022년 5.6%, 2023년 3.9%로 성장세가 둔화될 전망이다. 장기 손해보험은 상해 및 질병보험을 중심으로 전년 대비 4.8% 증가가 전망되며, 자동차보험은 2022년 상반기 보험료 조정 효과, 온라인 채널 확대 등으로 전년 대비 1.1% 증가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일반손해보험은 책임보험 시장 확대와 신규 리스크 담보 확대 등으로 전년 대비 5.9% 증가가 전망된다.

위험보험료는 IFRS17 도입 이후 보험회사의 중요한 보험영업 성장성 지표로 부각될 것으로 예상된다. 2023년 생명보험과 장기 손해보험 위험보험료 성장률은 각각 0.9%, 5.5%로 예년에 비해 성장세 둔화가 전망된다. 다만, 위험보험료 성장세는 수입(원수)보험료에 비해서는 소폭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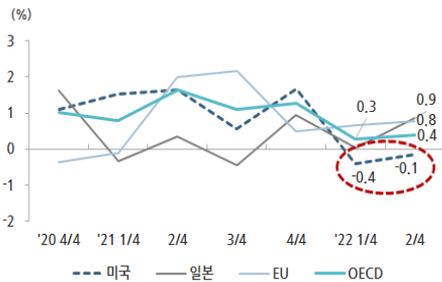
보험산업은 단기적으로는 경기 불확실성에, 장기 추세로 제도 불확실성과 수요 불확실성에 노출되어 있으므로, 보험시장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고 사업모형의 확장성과 역동성, 지속가능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먼저,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의 경기불확실성에 대응

하여 보험공급의 안정성을 높이고 경제·금융시장 안정화에 기여하는 장기투자자의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 IFRS17, ESG의 도입 등 새로운 국제규범의 시행과 1~2인 가구 비중(61.7%) 증가 등 소비자 구성의 변화라는 수요 불확실성에 대응하여 보험산업은 시장혁신을 통해 지속가능하고 확장성 있는 사업모형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 1. 세계경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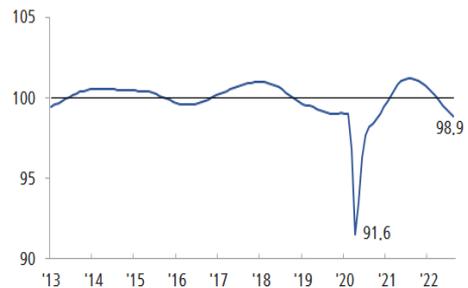
- OECD 전체를 비롯한 미국, 유럽지역 경제성장세는 2022년 들어 둔화되고 있음
  - 2022년 1/4분기와 2/4분기 OECD 전체 경제성장률은 각각 0.3%, 0.4%로 경제성장세가 둔화되었음
  - 특히 미국의 경우 2022년 1/4분기와 2/4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세로 경기둔화 속도가 가장 빠르게 나타남
  - OECD 경기선행지수는 코로나19 확산 이후 경기 정상화에 대한 기대감으로 빠르게 회복되어 왔으나 2022년 들어 기준선인 100을 하회하면서 향후 경기전망이 부정적임을 시사함

〈그림 I-1〉 OECD 주요국 경제성장률



주: 전기 대비 성장률임  
자료: OECD

〈그림 I-2〉 OECD 경기선행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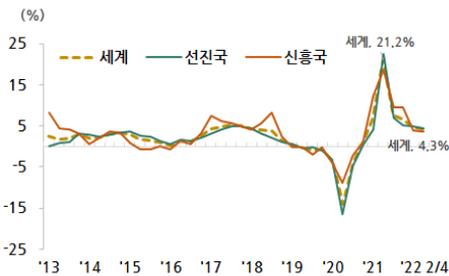


자료: OECD

- 코로나19 이후 빠르게 회복세를 보인 세계 무역 규모는 2022년에도 양호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나, 최근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보호무역주의 경향이 나타나면서 이로 인한 무역 규모 성장 둔화 가능성 우려가 제기됨

- 세계 산업생산 증가율 또한 무역 규모가 증가하면서 양호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음
- 글로벌 GDP 대비 무역 규모는 2008년 금융위기를 전후하여 미·중 간 무역갈등으로 소폭 하락추세로 전환됨(〈그림 I-5〉 참조)
  - 1940년 이후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무역자유화가 진전되어 왔고, 이는 장기간 글로벌 경제 성장을 이끌어 왔음
-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될 경우, GDP 대비 무역 규모 감소 가속화로 세계 경제성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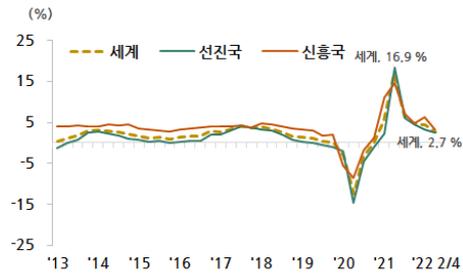
〈그림 I-3〉 세계 무역 규모 증가율



주: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임

자료: CPB Netherlands Bureau for Economic Policy Analysi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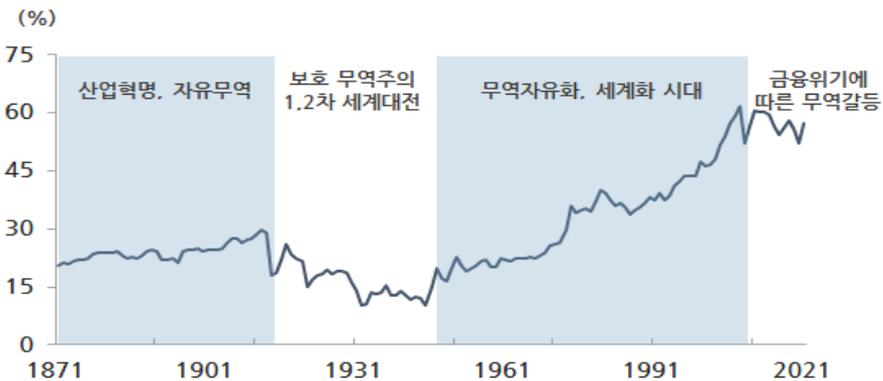
〈그림 I-4〉 세계 산업생산 증가율



주: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임

자료: CPB Netherlands Bureau for Economic Policy Analysis

〈그림 I-5〉 글로벌 GDP 대비 무역 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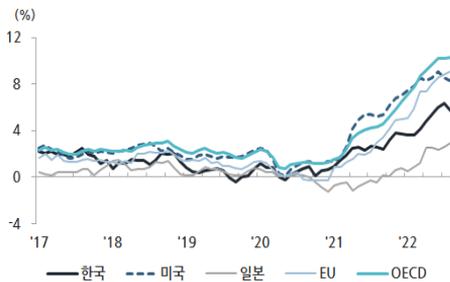


주: Global trade openness index = (세계수출 + 세계수입) / 글로벌 GDP × 100

자료: Our World in Data; World Ban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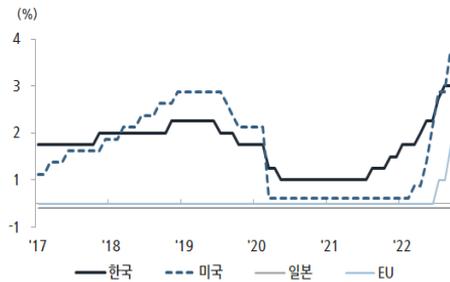
- 2021년 이후 OECD 전체를 비롯한 미국·유럽지역의 소비자물가는 급등세를 보이고 있으며, 미국은 인플레이션에 대응하기 위해 기준금리를 대폭 상향 조정하고 있음
  - 미국은 기준금리를 대폭 상향하고 있으나, 2022년 8월과 9월 미국 소비자물가지수가 예상치를 상회하며 각각 8.3%, 8.2% 상승하는 등 인플레이션 억제에는 역부족인 모습임
  - 한편 유럽과 일본의 경우 기준금리 인상에 소극적이며, 이는 달러화 강세로 이어지고 있음

〈그림 I-6〉 OECD 주요국 소비자물가 상승률 추이



주: 전년 동월 대비 증가율임  
자료: OECD

〈그림 I-7〉 주요국 기준금리 변화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Bloombe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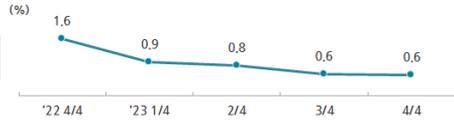
- IMF, OECD 등 국제기구와 민간기관들은 2023년 세계경제 성장률이 2022년에 비해 둔화될 것으로 예측함
  - IMF는 신흥국보다 선진국의 경기둔화가 클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는 수출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또한, OECD에 따르면 2023년 미국 경제성장률은 0%대로 전망되며, 미국에서 나타나고 있는 장단기 금리역전 현상은 경기침체 신호로 해석되고 있음

〈표 I-1〉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

		(단위: %)	
구분	전망시점	2022	2023
IMF		3.2	2.9
- 선진국	2022. 7	2.5	1.4
- 신흥국		3.6	3.9
OECD	2022. 6	3.0	2.8
Global Insight	2022. 7	2.7	2.6
6개 IB 평균	2022. 7	2.9	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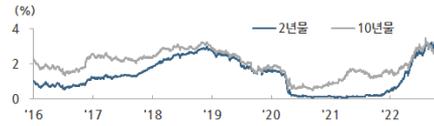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2022. 8), 『경제전망보고서』

〈그림 I-8〉 미국 경제성장률 전망치



자료: OECD(2022. 6), Economic Outlook, no.111

〈그림 I-9〉 미국 장단기 금리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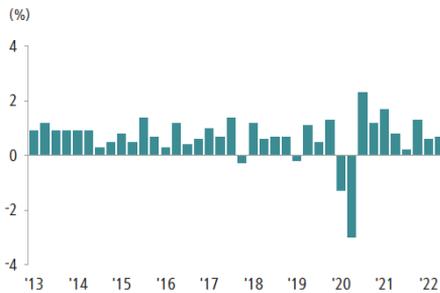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Bloomberg

## 2. 국내경제

- 우리나라 GDP는 2022년 1/4분기와 2/4분기 각각 전기 대비 0.6%, 0.7% 증가하며 코로나19 이후 빠르게 회복한 경제성장세가 둔화 추세를 보임
  - 완만한 경기회복세가 유지되고 있으나 글로벌 공급망 교란, 원자재 가격 급등 등 대외여건 악화에 따른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음
  - 향후 경기전망을 나타내는 경기선행지수는 2021년 9월 하락세로 전환된 후, 기준선 100을 하회하면서 경기둔화 우려가 확대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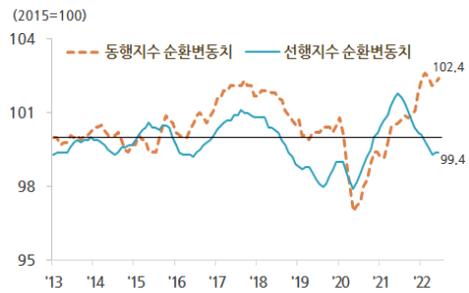
〈그림 I-10〉 국내 분기별 경제성장률



주: 전기 대비 성장률임

자료: 한국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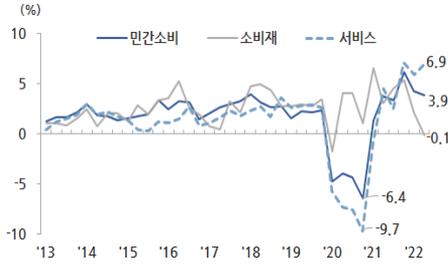
〈그림 I-11〉 동행지수 및 선행지수 순환변동치



자료: 한국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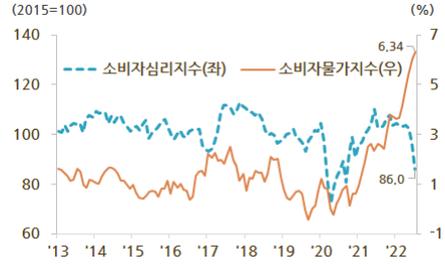
- 민간소비는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 여행 및 야외활동 등 서비스 소비 증가로 양호한 증가세를 보임
  - 그러나 재화소비는 코로나19 이후 보복 소비세가 진정되고, 서비스 소비 대체효과로 부진한 모습임
  - 한편, 부동산 및 금융시장 가격 하락으로 인한 역 자산효과가 본격화 될 경우 민간소비는 악화가 예상됨
  - 소비자심리지수는 2022년 6월 이후 하락하면서 기준선인 100을 하회하였고, 소비자 물가지수는 6%대를 돌파함

〈그림 I-12〉 민간소비 증가율



주: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임  
자료: 한국은행

〈그림 I-13〉 소비자 심리지수 및 물가지수



주: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임  
자료: 한국은행

- 설비투자는 글로벌 경기둔화와 자본조달 비용 상승 등으로 2022년 이후 마이너스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건설투자는 2018년 이후 지속적으로 부진한 모습임
- 수출 규모 증가세는 코로나19 이후 세계 무역 규모 회복과 함께 양호한 모습임
  -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여파와 미·중 무역분쟁 심화로 인한 보호무역주의 확산은 수출 주도의 한국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음
  - 한편, 최근 경상수지 적자가 지속되면서 외환보유고 감소에 따른 환율 불안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음

〈그림 I-14〉 설비투자 및 건설투자 증가율



주: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임  
자료: 한국은행

〈그림 I-15〉 재화 수·출입 증가율



주: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임  
자료: 한국은행

### 3. 금융시장

#### 가. 금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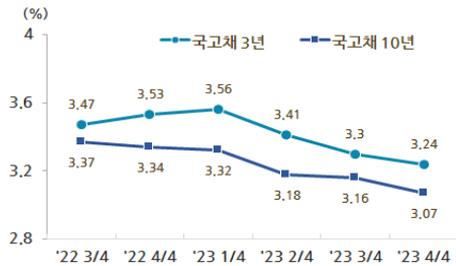
- 한국은행은 2021년 이후 2022년 9월까지 일곱 차례 금리 인상을 단행하는 등 인플레이션에 대응하기 위하여 공격적으로 기준금리를 인상 중임
  - 한국은행의 공격적인 기준금리 인상으로 단기금리가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장단기 금리차 축소현상이 나타나고 있음
  - 주요 투자은행들은 2023년 1분기까지 국내 장단기 금리가 상승한 이후 점진적으로 하향세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함

〈그림 I-16〉 국내 기준금리 및 국고채 금리 추이



주: 2022년 9월 기준임  
자료: Bloomberg

〈그림 I-17〉 주요 투자은행 국내 금리전망



주: 투자은행 금리전망 가중평균값으로 전망시점은 2022년 9월 초 기준임  
자료: Bloomberg

- 세계 주요국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크게 상승하고 있음
  - 우리나라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미국에 비해서는 낮은 상황이지만 2000년대 들어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음

〈그림 I-18〉 한국·미국 소비자물가 상승률 추이



주: 전년 동기 대비 상승률임

자료: 한국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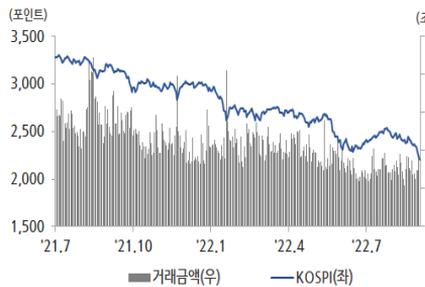
- 소비자물가 인플레이션 확대는 대차대조표(자산 및 부채 가치), 자산운용, 보험 수요, 보험금 청구액, 사업비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보험회사 건전성과 수익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sup>1)</sup>
  - 생명보험산업의 경우 소비자물가 인플레이션의 부정적인 영향이 손해보험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알려짐
  - 성장성 측면에서는 인플레이션이 확대되고 금리가 상승하면 보험계약 가치가 감소하기 때문에 보험 수요가 위축되고 계약해지가 늘어날 수 있음
    - 실손계약의 경우 보험금 청구액이 증가하고, 자기부담금액을 초과하는 청구 건수도 증가함
  - 수익성 측면에서는 인플레이션이 보험회사의 ROE 및 ROA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결과가 보고됨
    - 인플레이션에 따른 판관비 증가도 수익성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함
  - 인플레이션 확대로 금리가 상승하면 부채시가평가 시 건전성 개선이 가능하나, 수익성 악화로 인한 가용자본의 감소는 부정적이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은 종합적으로 따져봐야 함

1) 윤성훈(2022. 1. 24), 「2022년 보험산업이 주목할 환경변화: ① 인플레이션과 보험산업」, 이슈분석, 『KIRI 리포트』

## 나. 주가 및 환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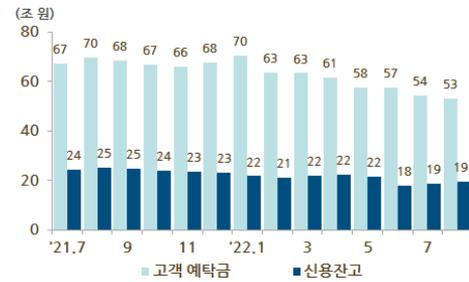
- 2021년 중반부터 기준금리 인상으로 코로나19 확산 시 크게 증가했던 유동성이 급속히 회수되면서 주가지수는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음

〈그림 I-19〉 주가지수 및 거래금액 추이



자료: 한국거래소

〈그림 I-20〉 주식시장 고객 예탁금 및 신용잔고 추이



자료: 금융투자협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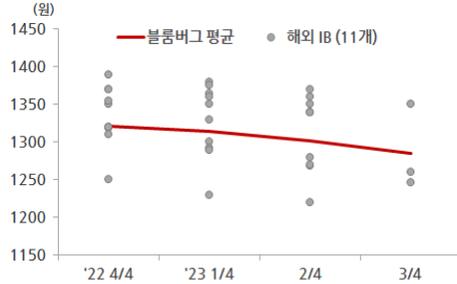
- 원/달러 환율은 1,400원대까지 급등하면서 금융시장 불안이 지속되고 있으며, 환율 상승은 전 세계적인 달러 강세의 영향이 큼
  - 유로, 일본, 영국 등 세계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의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 지표 또한 최근 급등세를 보임
  - 달러의 지속적 강세는 수입물가 상승을 통한 인플레이션 전이, 타 국가의 금리 인상, 경기둔화의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달러부채의 상환부담이 커져 신흥국 경제의 리스크 확대가 예상됨
  - 한편, 해외 주요 투자은행들은 2023년 원/달러 환율의 점진적 하락을 전망함

〈그림 I-21〉 원/달러 환율, 달러인덱스 추이



자료: Bloomberg

〈그림 I-22〉 해외 주요 투자은행 환율전망



주: 2022년 9월 기준임

자료: Bloomberg

#### 4. 2023년 국내경제 전망

○ 국내외 주요 기관들은 2023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1~2.3% 수준으로 낮게 제시함

- 한국은행과 KDI는 2023년 우리나라 경제가 각각 2.1%, 2.3%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 이는 2022년에 비해 0.5%p 하락한 수치임
- OECD와 IMF 또한 2023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각각 2.2%, 2.1%로 낮게 제시하고 있음
- 개인보험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민간소비는 인플레이션과 경기 불확실성 확대로 증가세의 큰 폭 둔화가 전망됨
- 설비투자과 건설투자는 2023년 소폭 회복될 것으로 전망되나, 주요국 경기둔화로 성장둔화가 예상됨
- 수출과 수입 또한 중국, 미국 등 주요국 경기둔화의 영향으로 역시 성장률 감소가 전망됨

〈표 I-2〉 국내 주요 기관 전망

(단위: %, 억 달러)

구분	2020	2021	2022(F) <sup>1)</sup>		2023(F) <sup>1)</sup>	
			한국은행 <sup>2)</sup>	KDI <sup>3)</sup>	한국은행 <sup>2)</sup>	KDI <sup>3)</sup>
실질 GDP	-0.7	4.1	2.6	2.8	2.1	2.3
민간소비	-4.8	3.7	4.0	3.7	2.6	3.9
설비투자	7.2	9.0	-3.8	-4.0	0.9	2.4
건설투자	1.5	-1.6	-1.5	-1.3	2.2	2.3
지식생산물투자	3.4	4.4	4.0	4.6	3.5	3.4
상품수출	-0.2	10.5	3.2	4.3	1.6	2.5
상품수입	0.3	12.8	2.9	4.2	2.1	2.8
실업률	4.0	3.7	3.1	3.1	3.5	3.3
소비자물가	0.5	2.5	5.2	4.2	3.7	2.2
경상수지	759	883	370	516	340	602
상품수지	806	762	305	442	460	650
서비스·본원 이전소득수지	-47	121	65	74	-120	-48

주: 1) 2022(F), 2023(F)는 전망치임  
 2) 한국은행(2022. 8), 『경제전망보고서』  
 3) KDI(2022. 5), 『KDI 경제전망』

자료: 한국은행, KD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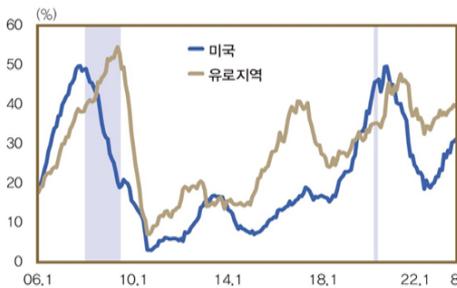
## 5. 경기 변화와 보험산업

- 미국, 유럽 등 선진국의 경기침체는 2023년 국내 경기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는 요인임
  - 한국은행의 분석에 따르면 2022년 들어 미국과 유럽의 경기침체 확률은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러시아의 유럽 내 가스공급이 중단될 경우 유럽 경제성장률은 큰 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 중국의 경우에도 저성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부동산 부문 침체가 은행 부문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음
  - 한편, 베네수엘라와 같은 신흥국의 국가 채무불이행의 위험 높아지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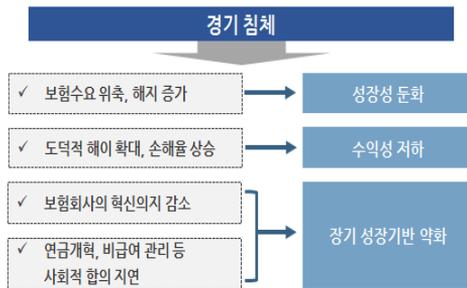
○ 국내 경기침체는 보험산업의 성장성 및 수익성뿐만 아니라 장기 성장 기반을 약화시키는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먼저 보험 수요 위축, 해지 증가 등 성장성이 둔화될 수 있으며, 도덕적 해이가 증가하면서 보험금 지급 증가로 인한 손해를 상승으로 수익성 저하가 나타날 수 있음
- 또한 보험회사의 혁신 의지가 감소하고 연금개혁 및 비급여 관리 등 사회적 합의가 지연되면서 장기 성장 기반의 약화도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그림 I-23〉 미국과 유로지역 경기침체 확률



〈그림 I-24〉 경기침체 시 보험산업 영향



주: 1) 미국은 FRB NY 등의 권고를 따라 국채 10년물-3개월물을 사용, 유로지역은 ECB에서 제공하는 국채 10년물-1년물을 사용(12개월 선행)함  
 2) 음영은 NBER 기준 미국의 경기침체기임  
 3) 12개월 이동평균 기준임

자료: 저자가 직접 작성함

자료: 한국은행(2022), 『미국·유럽의 경기침체 리스크 평가 및 시사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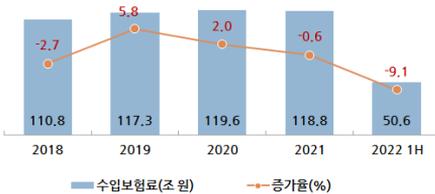
## II

# 보험산업 주요 동향

## 1. 2022년 상반기 성장성과 수익성

- 2022년 이후 높은 인플레이션이 나타나고 있고 이로 인한 금리 상승 및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으며, 이러한 금융시장 환경 변화는 저축 및 투자형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생명보험 성장성에 즉각적으로 부정적인 충격을 미치고 있음
  - 2022년 상반기 생명보험 수입보험료는 9.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한편 실물경기 둔화는 본격화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보장성보험과 기업성보험 비중이 높은 손해보험은 2022년 상반기 6.7%로 양호한 성장을 지속하고 있음
- 2022년 상반기 보험산업 당기순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1.1% 감소함

〈그림 II-1〉 생명보험 수입보험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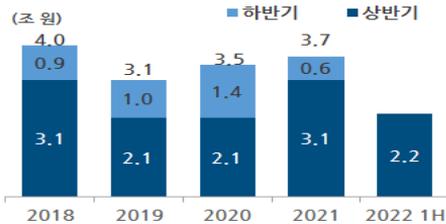
자료: 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그림 II-2〉 손해보험 원수보험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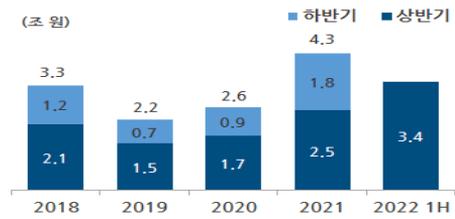
자료: 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그림 II-3〉 생명보험 당기순이익



자료: 금융감독원

〈그림 II-4〉 손해보험 당기순이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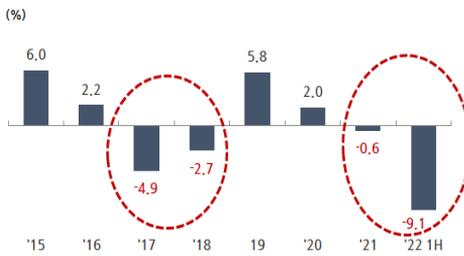


자료: 금융감독원

## 2. 생명보험 장기 성장성 진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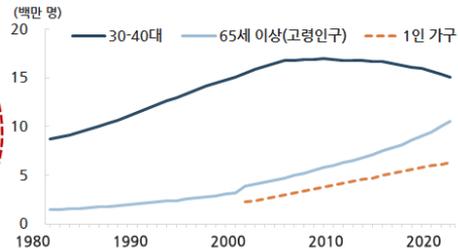
- 2015년 이후 8년간 생명보험은 네 번의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며 성장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인구조사구조 변화를 고려할 때 생명보험산업의 저성장 장기화는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됨
  - 개인보험의 주요 신규 고객층인 30~40대 인구는 2008년 이후 감소하고 있으며, 반면 보험가입여력이 낮은 65세 이상 인구는 증가하고 있음
  - 또한 1인 가구 비중도 꾸준히 증가하여 유족이나 자녀에 대한 보장을 제공하는 보장성보험 수요가 약화되고 있음
- 생명보험의 저성장 장기화를 타개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그림 II-5〉 생명보험 수입보험료 성장률 추이



자료: 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그림 II-6〉 30~40대 인구, 65세 이상 인구, 1인 가구 추이



주: 1인 가구 통계는 2000년 수치부터 공표됨  
자료: 통계청

## 3. 생명보험 종목별 동향

### 가. 개요

- 2022년 상반기 저축보험과 변액보험의 수입보험료 증가율이 전년 동기 대비 크게 감소하고, 보장성보험의 성장세는 둔화됨

- 저축보험은 은행 정기예금 금리의 큰 폭 상승으로 상대적 금리 경쟁력을 상실하면서 수입보험료가 대폭 감소하고, 변액보험 수입보험료 또한 주가지수 하락으로 인해 큰 폭으로 감소함
- 연금보험도 수입보험료가 감소하고 있으며, 보장성보험의 경우 유일하게 성장을 이어가고 있지만, 성장세는 예년에 비해 둔화됨

〈표 II-1〉 생명보험 종목별 수입보험료 증가율

(단위: %)

구분	'21 1/4	2/4	3/4	4/4	'22 1/4	2/4
보장성	3.2	2.5	-7.3	1.2	1.9	2.7
저축	-0.1	1.1	-29.3	-32.7	-31.6	-28.2
연금	12.7	-1.8	-4.7	-4.2	-9.8	-1.9
변액	15.2	6.3	-0.3	-4.1	-28.1	-24.6

자료: 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 나. 저축보험<sup>2)</sup>

- 저축보험은 2020년 21.6%의 고성장 이후 2021년 -15.7% 감소하였으며, 이후 2022년 상반기에도 수입보험료가 전년 동기 대비 감소함
  - 저축보험은 방카슈랑스 판매비중이 95%를 상회할 정도로 방카 채널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은행에서 판매하는 정기예금 상품과 대체관계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음
    - 코로나19가 확산되고 시중금리가 급격히 하락한 2020~2021년 기간에는 공시기준이율이 정기예금 금리를 크게 상회하면서 저축보험이 대규모 판매되었음
    - 최근에는 공시기준이율과 저축성예금 금리 차이가 축소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저축성보험은 금리경쟁력을 상실하고 있음
  - 그동안 보험회사는 IFRS17 시행에 대비하여 보장성보험 중심의 상품전략을 유지해 왔으나, 자산운용 효율성을 위한 자산 규모 확대도 중요하기 때문에 저축보험에 대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한 상황임

2) 여기서 저축보험은 생사혼합보험을 의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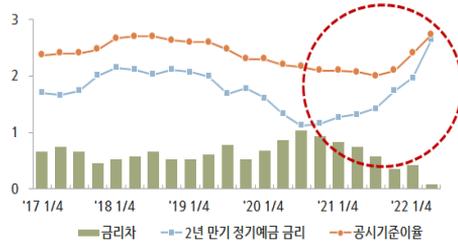
- 저축보험 자체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보험회사 자산운용 이익률 향상이 필요할 것이나, 현실적으로 쉽지 않기 때문에 저축보험 만기 적립금 재유치를 위한 연금상품 연계 전략 등이 필요함

〈그림 II-7〉 저축보험 수입보험료



자료: 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그림 II-8〉 정기예금 금리 및 공시기준이율 추이



자료: 한국은행: 보험개발원

## 다. 변액보험

### ○ 2022년 상반기 변액보험 수입보험료는 주가지수 하락으로 급감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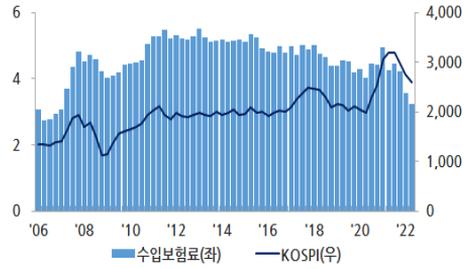
- 코로나19 시기 MZ세대를 중심으로 개인투자 선호도가 확대되어 금융시장이 회복될 경우 자금 이동이 민감하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큰 만큼 변액보험 경쟁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 코로나19 이후 주식시장이 크게 반등하면서 일반 투자자들의 주식시장 투자 규모가 확대되고, 특히 주식처럼 손쉽게 다양한 펀드에 투자할 수 있는 ETF (Exchange Traded Fund)시장이 부상함
  - 또한 디지털 환경은 개인이 투자 결정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투자형 상품의 선호도를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음

〈그림 II-9〉 변액보험 초회보험료



자료: 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그림 II-10〉 주가지수와 변액보험 수입보험료



자료: 한국거래소; 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 라. 보장성보험<sup>3)</sup>

○ 2022년 상반기 보장성보험은 생명보험회사의 적극적인 종신보험 신상품 전략 위축과 경  
기둔화로 성장성이 둔화됨

- 생명보험 보장성보험은 2015년 이후 종신보험 신상품 전략을 통해 지속적으로 성  
장해옴
  - 연금전환 종신보험, 무해지·저해지 종신보험 등 사망보장 기능과 노후소득 및  
저축 기능을 혼합한 상품전략이 소비자의 니즈에 충족함
- 그러나 상품 복잡성 증가로 인해 소비자 피해를 우려한 금융당국의 조치 또한 증  
가함
- 2021년 하반기 이후 종신보험과 질병, 건강보험 초회보험료는 지속적으로 감소함

○ 2015년을 전후하여 저축성보험에 대한 수수료 압박이 커지고 IFRS17에 대비하기 위해  
보험회사들은 보장성보험 위주의 포트폴리오로 변경함

- 2015년에는 연금 선지급형(연금미리받는) 종신보험이, 2019~2020년에는 (무)저해  
지환급형 종신보험이 주력상품으로 판매되었음

○ 그러나 상품 복잡성 증가로 감독당국의 소비자 보호조치도 동시에 증가하면서 신상품 전  
략이 위축되고 있으며, 생명보험산업의 성장을 이어갈 대안이 필요한 상황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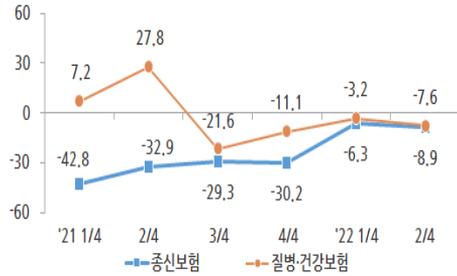
3) 해당 보장성보험에는 종신보험, CI, 건강보험 등을 포함함

〈그림 II-11〉 보장성 수입보험료



자료: 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그림 II-12〉 종신 및 질병·건강보험 초회보험료 증가율



자료: 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 마. 연금보험

- 연금보험은 2015년 이후 수입보험료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이는 수수료 규제, IFRS17, K-ICS 제도 도입에 따른 포트폴리오 조정 등 제도적 요인에 기인함
  - 세제적격 연금시장에서의 세제혜택 축소, 개인형 IRP상품의 세제적격 연금시장 잠식 등도 연금보험 부진의 요인임
  - 2022년 상반기에도 연금보험 수입보험료는 감소하였으나, 공시이율이 상승하면서 연금보험의 노후소득보장 기능이 부각될 가능성이 있음
- 최근 공적연금 개혁 문제의 대두와 이로 인한 사적연금 활성화 논의 본격화로, 생명보험 성장성을 유지하기 위한 대안으로 주목할 필요가 있음
  - 연금보험(세제적격 및 세제비적격 연금)은 인구 고령화와 함께 소비자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수입보험료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

〈그림 II-13〉 연금보험 수입보험료



자료: 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표 II-2〉 연금보험 위축요인

연금시장 분류	위축 요인
세제적격 연금시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제혜택 약화(소득공제 → 세액공제)</li> <li>• 개인형 IRP의 세제적격 연금시장 잠식</li> </ul>
세제비적격 연금시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저금리하에서 수수료 제약 (7년 내 원금 100% 보장)</li> <li>• IFRS17, K-ICS제도 도입에 따른 포트폴리오 조정</li> </ul>

자료: 김세중 외(2022. 8. 17), 「장수하는 고령사회, 준비와 협력(II): 사적연금 보장성 강화와 보험산업의 역할」, 『CEO Report』

- 정책적으로는 수수료 및 세제 체계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며, 보험회사는 적극적인 신상품 개발에 나설 필요가 있음

〈그림 II-14〉 보험산업 연금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적·전략적 대응방안

보험산업 연금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적·전략적 대응방안	
정책적 대응방안	(세제혜택 확대) 세액공제를 과거와 같은 소득공제로 환원
	(연금보험 분류방식 변경) 연금을 저축성보험과 분리하여 별도 관리
전략적 대응방안	(저축형 및 투자형 상품의 균형) 저축형과 투자형 상품 간 균형 있는 포트폴리오 구축
	(연금가입 목적별 연금상품 공급) 소비자 니즈에 맞는 새로운 유형의 연금상품 공급 확대
	(최적 포트폴리오 구축) 사망보험과 연금보험의 자연헷지(Natural hedge) 효과 극대화
(수익률 개선 및 리스크 관리) 연금상품 설계 및 효율적인 자산운용을 통해 연금보험의 수익성 개선	

자료: 김세중 외(2022. 8. 17), 「장수하는 고령사회, 준비와 협력(II): 사적연금 보장성 강화와 보험산업의 역할」, 『CEO Report』

- 정책적 대응방안으로는 연금보험의 세제혜택을 확대하고, 연금보험을 저축성보험과 분리하여 별도 관리하는 방안이 있음
- 전략적 대응방안으로는 연금 가입 목적별 연금상품을 공급하고, 사망보험과 연금보험의 자연헷지 관계를 이용한 최적 포트폴리오 구축이 요구되며, 보험회사는 연금상품의 수익률 개선 및 리스크 관리에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음

## 4. 손해보험 종목별 동향

### 가. 개요

- 2022년 상반기 손해보험 원수보험료는 생명보험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음
  - 개인보험에 속하는 장기 보장성보험과 자동차보험의 성장세는 소폭 약화됨
  - 일반손해보험의 경우 기업성보험 중심이나 경기둔화의 영향에서 벗어나 지속적인 고성장세임
    - 일반손해보험의 성장세를 이끌고 있는 배상책임보험시장에 대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음

〈표 II-3〉 손해보험 종목별 원수보험료 증가율

(단위: %)

구분	'21 1/4	2/4	3/4	4/4	'22 1/4	2/4
장기 보장	6.0	6.7	6.8	6.6	6.5	6.2
장기 저축	-8.9	-17.7	-17.3	-22.6	-17.4	-24.4
자동차	6.3	3.8	1.4	3.7	3.0	3.0
일반손해	8.5	10.3	7.8	8.3	6.7	10.2

주: 장기 저축에는 개인연금 포함됨  
 자료: 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 나. 장기 손해보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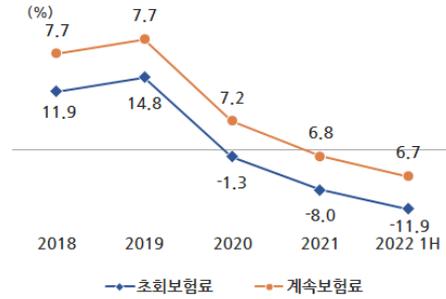
- 장기 보장성보험은 2020년 이후 신규가입이 정체되면서 계속보험료 및 갱신보험료 위주로 성장함
  - 장기 보장성보험 초회보험료는 2020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신규가입 둔화로 인해 장기 보장성보험 성장세는 점차 하락하고 있음

〈그림 II-15〉 장기 손해보험 원수보험료



자료: 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그림 II-16〉 장기 보장성보험 초회·계속보험료 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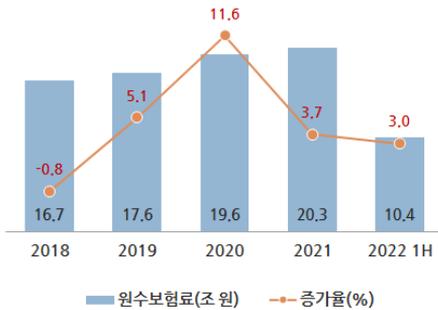
자료: 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 다. 자동차보험

○ 2020~2021년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조치로 자동차 등록대수가 크게 증가하면서 자동차보험 고성장을 이끌었으나, 최근 자동차 등록대수 증가세는 하향 안정화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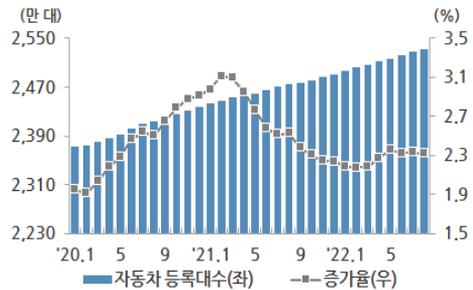
- 보험료 인하 조치, 온라인 채널 비중 증가, 마일리지 특약 의무 가입 등은 자동차보험 원수보험료 성장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함

〈그림 II-17〉 자동차보험 원수보험료



자료: 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그림 II-18〉 자동차 등록대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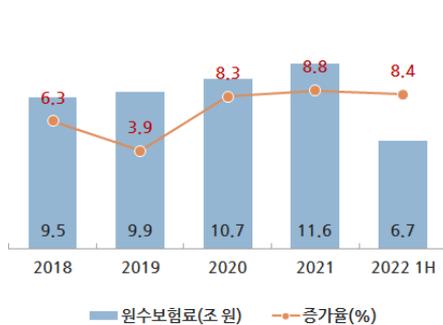
자료: 국토교통부

## 라. 일반손해보험

○ 2021년 상반기 화재, 해상, 보증, 특종보험 등 일반손해보험은 2020년 이후 8%대의 고 성장을 지속함

- 과거 기업성보험 위주의 일반손해보험은 경기변동에 민감한 모습을 보여 왔는데 최근 경기둔화에도 불구하고 고성장함
- 종목별로 보면 화재보험이 기저효과로 인해 성장세가 크게 둔화된 반면 해상보험과 특종보험은 선박수주와 수출입 물동량 증가, 책임보험 시장 확대로 높은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음

〈그림 II-19〉 일반손해보험 원수보험료



자료: 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표 II-4〉 일반손해보험 종목별 원수보험료 증가율 (단위: %)

구분	'21 2/4	3/4	4/4	'22 1/4	2/4
화재	18.3	19.8	13.1	1.8	0.1
해상	-4.4	16.8	25.4	7.6	28.4
보증	6.0	-2.4	-5.4	3.0	1.0
특종	13.0	8.6	8.7	7.0	8.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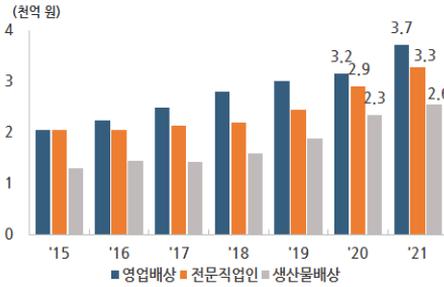
자료: 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 한편, 일반손해보험 중 성장세가 높은 배상책임보험 시장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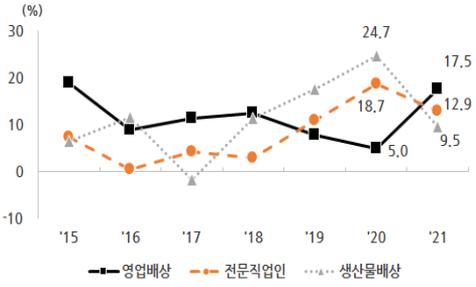
○ 배상책임보험 주요 종목인 영업 배상, 전문직업인 배상, 생산물 배상 모두 높은 성장세를 지속함

- 배상책임보험은 영업 배상, 전문직업인 배상, 생산물 배상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 세 종목이 배상책임보험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75.5% 수준임
- 2021년 영업 배상, 전문직업인, 생산물 배상책임보험 원수보험료 모두 전년 대비 9% 넘는 고성장을 유지함
- 배상책임보험의 원수보험료 규모 역시 계속 증가하여 2021년에는 2014년에 비해 약 2배 규모로 성장함

〈그림 II-20〉 배상책임보험 주요 종목별 보험료 〈그림 II-21〉 배상책임보험 주요 종목별 성장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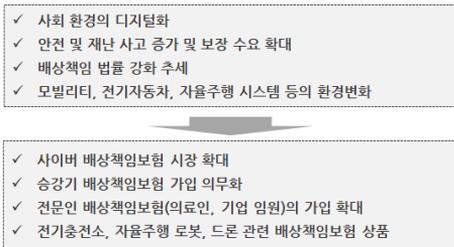
자료: 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자료: 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 배상책임보험은 디지털화와 4차산업 등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신규 보장영역 등장, 배상 책임 법률 강화 추세, 의무 배상책임보험 확대, 의료인 및 기업임원 등 전문직업인 배상 가입 확대 등 구조적인 요인으로 성장하고 있음
  - 한편, 배상책임보험 의무화도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음
- 경제성장과 함께 배상책임에 대한 인식이 강화되고 새로운 산업의 등장으로 배상책임 영역도 확대되면서 앞으로의 성장성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음

〈그림 II-22〉 배상책임보험 시장 확대 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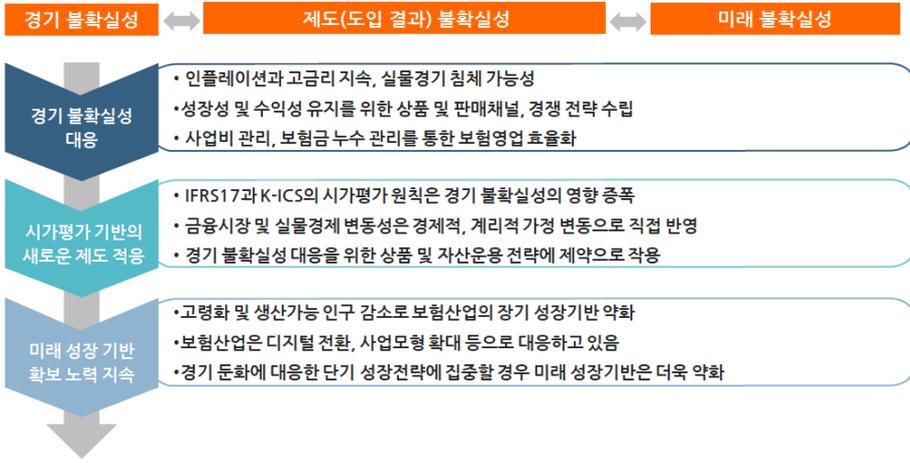
〈그림 II-23〉 배상책임보험 의무화 추이



## 1. 보험산업 보험료 전망 개요

- 2023년 보험산업은 경기 불확실성, 제도(도입 결과) 불확실성, 미래 성장기반 불확실성이 라는 세 가지 불확실성에 놓일 것으로 예상됨
  - 먼저 경기 불확실성은 인플레이션과 고금리 지속, 실물경기 침체 가능성 등으로 나타나고 있음
    - 보험산업은 이에 대응하여 성장성 및 수익성 유지를 위한 상품 및 판매채널, 경쟁 전략 수립이 필요하며, 사업비 관리, 보험금 누수 관리를 통한 보험영업 효율화에 나서야 할 것임
  - 다음으로 시가평가 기반의 새로운 제도 도입의 결과가 어떻게 전개될지도 불확실함
    - IFRS17과 K-ICS의 시가평가 원칙은 경기 불확실성의 영향을 증폭할 수 있는데, 이는 금융시장 및 실물경제 변동성은 경제적 가정 및 계리적 가정 변동으로 보험회사의 성과에 직접적으로 반영되기 때문임
    - 한편, 경기 불확실성 대응을 위한 상품 및 자산운용 전략을 수립하는 데 있어 새로운 제도 도입은 하나의 제약으로 작용하여 사용가능한 전력의 선택 폭을 좁게 할 수 있음
  - 마지막으로 미래 성장기반의 불확실성 또한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 고령화 및 생산가능 인구 감소로 보험산업의 장기 성장기반은 약화되고 있음
    - 보험산업은 이에 대응하여 디지털 전환, 사업모형 확대에 나서고 있지만, 경기 둔화에 대응한 단기 성장전략에 집중할 경우 미래 성장기반은 더욱 약화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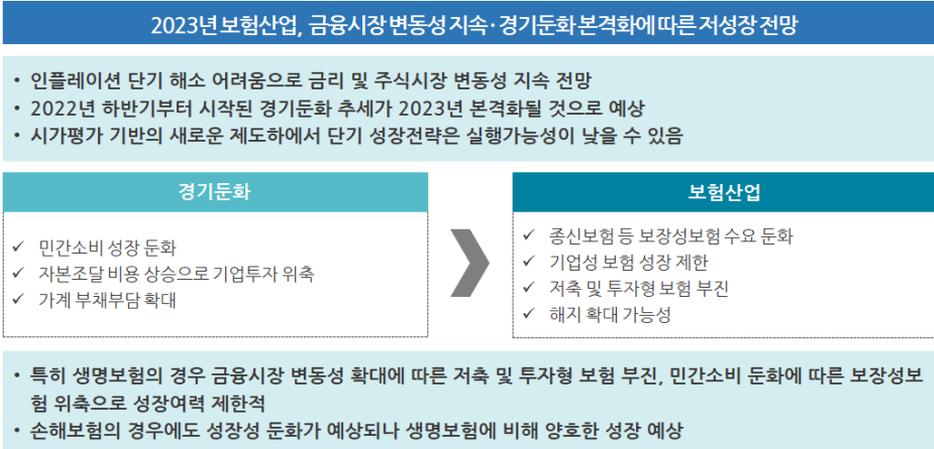
〈그림 Ⅲ-1〉 보험료 전망 개요



- 2023년은 보험산업에 있어 ‘복합 불확실성의 시기’라고 요약할 수 있으며, 2023년 보험 산업은 복합 불확실성이라는 문제의 해법을 슬기롭게 찾아가야 하는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다고 판단됨
- 2023년 보험산업은 인플레이션 확대에 따른 금융시장 변동성 지속과 경기둔화 추세 본격화로 저성장이 전망됨
  - 인플레이션의 단기 해소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2023년에도 금리 및 주식시장 변동성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음
  - 2022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경기둔화 추세가 2023년 본격화될 것으로 보임
    - 경기둔화는 민간소비 및 기업 투자를 위축시켜 보장성보험과 기업성보험 수요를 억제할 것으로 예상되며, 가계부채 부담 확대로 해지 증가 가능성도 높음
  - 2023년 도입될 새로운 제도<sup>4)</sup>에서 단기 성장전략의 실행 가능성도 낮기 때문에 보험산업의 성장성 확보를 위한 대응 여력이 높지 않은 상황임
- 생명보험의 경우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에 따른 저축 및 투자형 보험 부진, 민간소비 둔화에 따른 보장성보험 위축으로 성장여력이 제한적일 것이며, 손해보험의 경우 성장성 둔화가 예상되나 생명보험에 비해 양호한 성장이 예상됨

4) 2023년 새로운 보험회계기준과 지급여력제도인 IFRS17과 K-ICS의 시행이 예정되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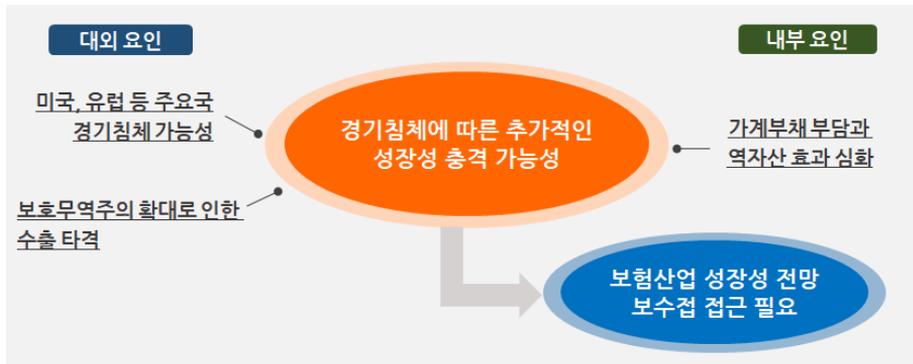
〈그림 Ⅲ-2〉 보험료 전망 개요



○ 경기둔화가 예상보다 심화될 경우 보험산업은 추가적인 성장성 하락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으며, 2023년 보험산업 성장성 전망은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함

- 2023년 경제성장률 2% 수준을 기준으로 보험산업 성장성을 전망하였으나 경기침체가 나타날 가능성도 상존하고 있음
- 대외적으로 미국, 유럽 등 주요국 경기침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인한 글로벌 무역 규모 감소 가능성도 있음
- 대내적으로 금리 상승으로 인한 가계부채 부담 확대와 부동산 등의 자산가치 하락으로 인한 역자산 효과 심화로 소비심리가 더욱 악화될 수 있음

〈그림 Ⅲ-3〉 경기침체의 추가적 영향 고려의 필요성



## 2. 보험산업 보험료 전망

### 가. 보험산업 수입(원수)보험료 전망

- 2023년 보험산업 전체 수입(원수)보험료는 전년 대비 2.1%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생명보험 수입보험료 증가율은 2022년 -3.8%, 2023년 0.3%로 낮은 성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 손해보험 원수보험료 증가율은 2022년 5.6%에서 2023년 3.9%로 성장세가 둔화될 전망임
  - 2023년 보험산업 수입(원수)보험료 규모는 232.8조 원 수준으로 전망됨

〈그림 III-4〉 보험료 증가율 전망



주: 보험연구원 추정치(E) 및 전망치(F)임  
 자료: 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그림 III-5〉 보험료 규모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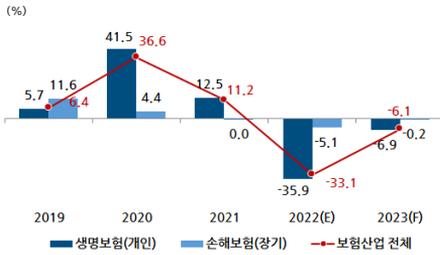
주: 보험연구원 추정치(E) 및 전망치(F)임  
 자료: 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 나. 보험산업 초회보험료 전망

- 2023년 보험산업 초회보험료<sup>5)</sup>는 전년 대비 6.1% 감소하여 2년 연속 역성장이 전망됨
  - 생명보험 개인보험 초회보험료 성장률은 2022년 -35.9%, 2023년 -6.9%가 전망됨
  - 장기 손해보험 초회보험료 성장률은 2022년 -5.1%에서 2023년 -0.2%로 감소세가 소폭 둔화될 전망임
- 보험산업 전체 초회보험료 규모는 2022년 8.8조 원, 2023년 8.3조 원 수준으로 예상됨

5) 생명보험 초회보험료는 퇴직연금과 일반단체보험을 제외한 개인보험이며, 손해보험 초회보험료는 장기 손해보험임

〈그림 Ⅲ-6〉 초회보험료 증가율 전망



주: 1) 보험연구원 추정치(E) 및 전망치(F)임  
 2) 생명보험은 퇴직연금과 일반단체보험을 제외한 개인보험이며, 손해보험은 장기 손해보험 기준임  
 자료: 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그림 Ⅲ-7〉 초회보험료 규모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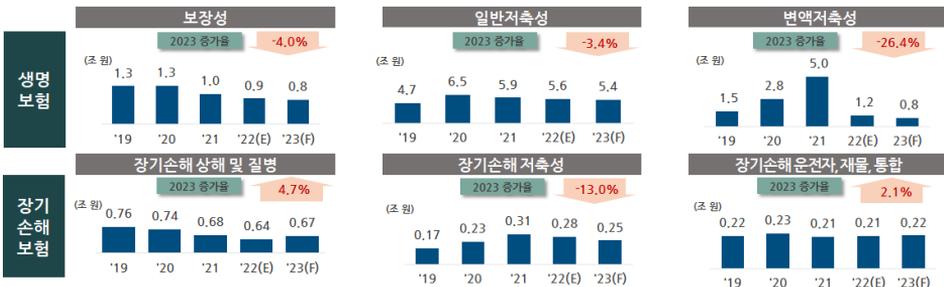
주: 1) 보험연구원 추정치(E) 및 전망치(F)임  
 2) 생명보험은 퇴직연금과 일반단체보험을 제외한 개인보험이며, 손해보험은 장기 손해보험 기준임  
 자료: 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 생명보험 종목별 초회보험료의 경우 보장성보험, 일반저축성보험, 변액저축성보험 모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 보장성보험 초회보험료는 종신보험 신규 수요 부진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 일반저축성보험 초회보험료의 경우 연금보험 회복세가 나타나겠으나 저축보험의 금리 경쟁력 상실에 따른 감소로 전체적인 감소세가 전망됨
- 변액저축성보험의 경우 금융시장 불안이 지속된다는 가정하에 초회보험료의 대폭 감소가 예상됨

○ 장기 손해보험의 경우 장기 상해 및 질병보험은 초회보험료의 소폭 증가가 예상되며, 장기 운전자보험 초회보험료 또한 성장이 예상됨

〈그림 Ⅲ-8〉 종목별 초회보험료 전망



주: 1) 보험연구원 추정치(E) 및 전망치(F)임  
 2) 초회보험료는 1회차 보험료로 일시납 보험료와 비일시납 보험료를 모두 포함함  
 자료: 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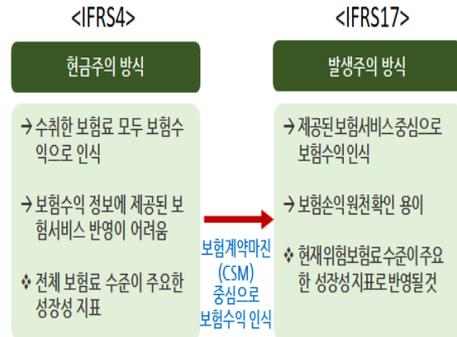
## 다. 보험산업 위험보험료 전망

- 위험보험료는 IFRS17 도입 이후 보험회사의 중요한 보험영업 성장성 지표로 부각될 것으로 예상됨
  - 2023년 IFRS17 도입으로 보험부채의 시가평가가 이루어지고, 보험영업수익의 인식 방법이 현금주의 방식에서 발생주의 방식으로 변경될 것임
  - 위험보험료는 보험영업손익의 원천이 되는 지표로써 중요성이 부각될 것이며, 수입보험료는 보험영업과 투자영업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성장성 지표로 활용될 것으로 예상됨
  - 특히, 생명보험 및 장기 손해보험과 같은 장기계약의 경우 수입보험료와 위험보험료의 성장세가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이를 구분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해당 종목의 위험보험료 추정을 토대로 한 2023년 위험보험료 전망을 시행함

〈그림 III-9〉 보험부채 평가 방식 변경



〈그림 III-10〉 보험수익 인식 방법 변경



자료: 금융감독원(2021. 12), 「보험감독회계 도입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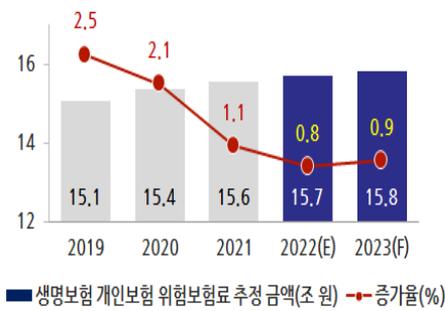
자료: 금융감독원(2021. 12), 「보험감독회계 도입방안」

- 최근 보험산업의 위험보험료<sup>6)</sup>는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있으나, 성장세는 둔화되고 있음
  - 2021년 기준 생명보험 개인보험 위험보험료는 수입보험료 규모의 약 13.1%, 장기 손해보험 위험보험료는 원수보험료의 29.3% 수준임
  - 2023년 생명보험 개인보험과 장기 손해보험 위험보험료 성장률은 각각 0.9%, 5.5%로 수입(원수)보험료에 비해서는 소폭 높은 수준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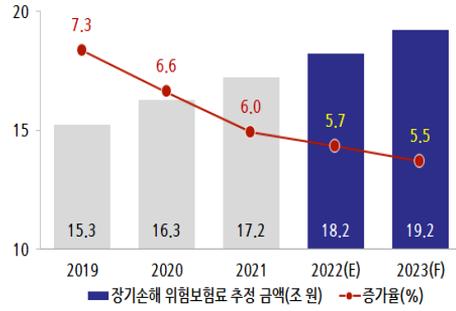
6) 생명보험 위험보험료는 퇴직연금과 일반단체보험을 제외한 개인보험이고, 손해보험 위험보험료는 장기 손해보험임

- 하지만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모두 2018년 이후 위험보험료 증가세는 추세적으로 둔화되고 있는 상황임

〈그림 Ⅲ-11〉 생명보험 개인보험 위험보험료 추정 〈그림 Ⅲ-12〉 장기 손해보험 위험보험료 추정 및 전망



주: 보험연구원 추정치(E) 및 전망치(F)임



주: 보험연구원 추정치(E) 및 전망치(F)임

## 라. 보험산업 보험료 전망 요약

○ 최근 보험산업의 수입(원수)보험료, 위험보험료, 초회보험료 성장세가 대체로 이전에 비하여 낮은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됨

- 2023년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수입보험료 및 위험보험료 전망은 모두 2014~2021년 기간 평균 성장세를 하회함
- 특히, 2014~2021년 기간 생명보험의 수입보험료와 위험보험료 평균 성장세는 각각 1.0%, 3.1%로 저성장을 지속하고 있으며, 2023년 전망은 이와 같은 저성장 추세보다도 낮은 수준이 예상됨
- 2023년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초회보험료는 감소세를 지속할 전망이다

〈그림 III-13〉 보험료 성장률 변화 비교(2014~2021년 vs. 2022(E), 2023(F))



- 주: 1) 보험연구원 추정치(E) 및 전망치(F)임  
 2) 위험보험료와 초회보험료는 생명보험의 경우 퇴직연금과 일반단체보험을 제외한 개인보험 기준이며, 손해보험의 경우 장기 손해보험 기준임  
 3) '14~'21은 연평균 성장률(CAGR)임

### 3. 생명보험

#### 가. 개요

- 2023년 생명보험 수입보험료는 질병·건강보험 성장에도 저축보험 및 투자형 상품 부진과 종신보험 신규 수요 감소로 전년 대비 0.3% 증가에 그칠 전망이다
  - 보장성보험은 종신보험 신규 수요 축소에도 불구하고 갱신 보험료 중심으로 소폭 성장이 전망됨
  - 일반저축성보험은 금리 경쟁력 약화로 인한 저축보험 실적 둔화로 감소할 전망이다
  - 변액저축성보험은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신규 수요가 축소됨에 따라 수입보험료가 감소할 전망이다



## 나. 보장성보험<sup>7)</sup>

- 보장성보험은 신상품 개발 위축으로 종신보험 부진이 지속되면서 질병·건강보험 중심으로 전년 대비 2.3% 성장할 전망이다
  - 경기둔화에 대한 우려 확대, 설계사 판매수수료 체계 개편 등은 보험료 성장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임
  - IFRS17과 K-ICS 시행으로 보험회사의 보장성보험 확대 전략은 지속될 것임
  - 질병 및 건강에 대한 관심 확대로 관련된 보험상품의 개발 노력과 신규 판매 확대가 예상됨

〈그림 III-16〉 보장성보험 수입보험료 전망



주: 보험연구원 추정치(E) 및 전망치(F)임  
 자료: 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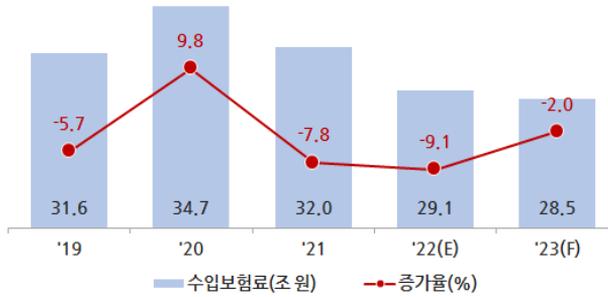
## 다. 일반저축성보험<sup>8)</sup>

- 일반저축성보험은 저축보험의 상대적 금리 경쟁력 약화 등으로 전년 대비 2.0% 감소가 전망됨
  - 연금보험은 공시이율 상승과 은퇴인구 증가 등으로 신규수요 회복이 전망됨
  - 저축보험은 예·적금 금리 인상에 따른 상대적 금리경쟁력 약화로 감소가 예상됨
  - 자산 규모 확대를 위한 일부 회사의 전략적 고금리 상품 판매가 나타날 수 있음

7) 보장성보험은 종신보험·CI·건강보험·변액종신보험을 포함함

8) 일반저축성보험은 생존보험과 생사혼합보험을 포함함

〈그림 III-17〉 일반저축성보험 수입보험료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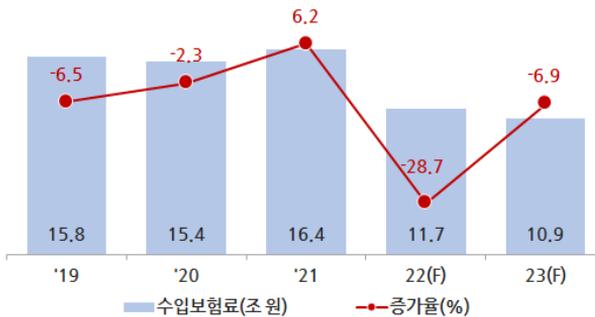
주: 보험연구원 추정치(E) 및 전망치(F)임  
 자료: 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라. 변액저축성보험<sup>9)</sup>

○ 변액저축성보험은 금융시장 불확실성 확대 및 투자심리 위축 등으로 전년 대비 6.9% 감소할 전망이다

- 투자상품에 대한 관심 확대에도 금융시장 불확실성 증가, 인플레이션 확대에 의한 경기둔화 가능성, 금리 인상에 따른 유동성 축소로 신규판매 둔화가 예상됨
- 투자심리 위축 및 경기둔화 우려에 따른 해지로 기존 계약의 이탈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음

〈그림 III-18〉 변액저축성보험 수입보험료 전망



주: 보험연구원 추정치(E) 및 전망치(F)임  
 자료: 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9) 변액저축성보험은 변액연금과 변액유니버설을 포함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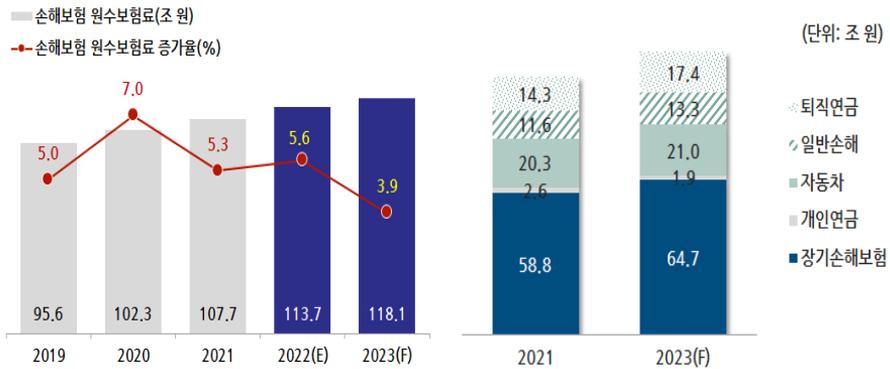
## 4. 손해보험

### 가. 개요

○ 2023년 손해보험 원수보험료는 장기 및 일반손해보험 증가로 전년 대비 3.9% 성장이 전망됨

- 장기 손해보험은 상해·질병보험을 중심으로 성장세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됨
- 자동차보험은 2022년 상반기 보험료 조정 효과와 온라인 채널 확대 등으로 낮은 성장세가 예상됨
- 일반손해보험은 책임보험 시장 확대와 신규 리스크 담보 확대 등으로 성장세를 유지할 전망이다

〈그림 III-19〉 손해보험 원수보험료 규모와 증가율    〈그림 III-20〉 손해보험 종목별 원수보험료 규모 전망



주: 보험연구원 추정치(E) 및 전망치(F)임  
 자료: 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주: 보험연구원 전망치(F)임  
 자료: 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표 Ⅲ-2〉 손해보험 원수보험료 전망

(단위: 조 원, %)

구분	2020		2021		2022(E) <sup>1)</sup>		2023(F) <sup>1)</sup>	
	보험료	증가율	보험료	증가율	보험료	증가율	보험료	증가율
손해보험 전체 (퇴직연금 제외 시)	89.2	6.4	93.4	4.7	97.2	4.0	100.8	3.7
장기 손해보험	55.9	5.3	58.8	5.2	61.7	4.9	64.7	4.8
개인연금	3.0	-9.1	2.6	-13.3	2.2	-16.3	1.9	-13.9
자동차보험	19.6	11.6	20.3	3.7	20.7	1.9	21.0	1.1
일반손해보험	10.7	8.3	11.6	8.8	12.5	7.9	13.3	5.9
퇴직연금	13.1	11.4	14.3	9.1	16.5	15.7	17.4	5.0
손해보험 전체 (퇴직연금 포함 시)	102.3	7.0	107.7	5.3	113.7	5.6	118.1	3.9

주: 1) 보험연구원 추정치(E) 및 전망치(F)임  
 자료: 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 나. 장기 손해보험

- 2023년 장기 손해보험 원수보험료는 상해·질병·운전자보험의 성장세로 전년 대비 4.8% 증가 전망됨

〈표 Ⅲ-3〉 장기 손해보험 원수보험료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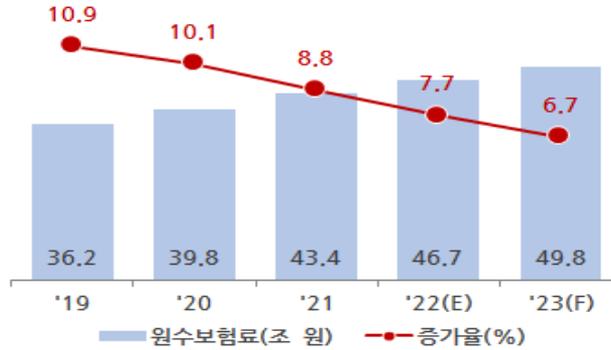
(단위: 조 원, %)

구분	2020		2021		2022(E) <sup>1)</sup>		2023(F) <sup>1)</sup>	
	보험료	증가율	보험료	증가율	보험료	증가율	보험료	증가율
장기 손해보험	55.9	5.3	58.8	5.2	61.7	4.9	64.7	4.8
상해 및 질병보험	39.8	10.1	43.4	8.8	46.7	7.7	49.8	6.7
저축성보험	2.8	-20.0	2.2	-20.1	1.6	-28.0	1.2	-26.0
운전자·재물 등	13.3	-1.0	13.3	-0.4	13.5	1.3	13.7	1.7

주: 1) 보험연구원 추정치(E) 및 전망치(F)임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 장기 보장성보험 중 상해·질병보험은 전년 대비 6.7% 증가 전망되나, 증가세는 둔화될 것임
  - 상해·질병보험은 건강보장 수요의 꾸준한 증가와 갱신보험료 유입에 의한 계속보험료 중심의 완만한 성장이 예상됨

〈그림 III-21〉 장기 상해·질병 원수보험료 전망



주: 보험연구원 추정치(E) 및 전망치(F)임  
 자료: 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 장기 보장성보험 중 운전자·재물·통합보험 원수보험료는 전년 대비 1.7% 증가가 전망됨
  - 운전자보험은 운전자 배상책임 강화로 성장세가 예상되는 반면, 재물보험과 통합보험은 신규 판매 확대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전망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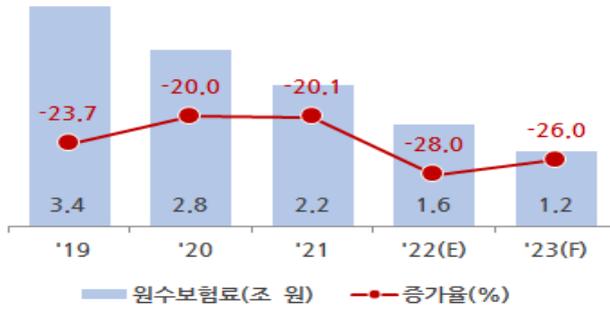
〈그림 III-22〉 장기 운전자·재물·통합 원수보험료 전망



주: 보험연구원 추정치(E) 및 전망치(F)임  
 자료: 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 장기 저축성보험은 전년 대비 26% 감소하여 큰 폭의 감소세를 지속할 전망이다
  - 보장성보험 중심의 포트폴리오 전략으로 손해보험회사의 저축성보험 신규 판매는 감소하고 있음

〈그림 III-23〉 장기 저축성 원수보험료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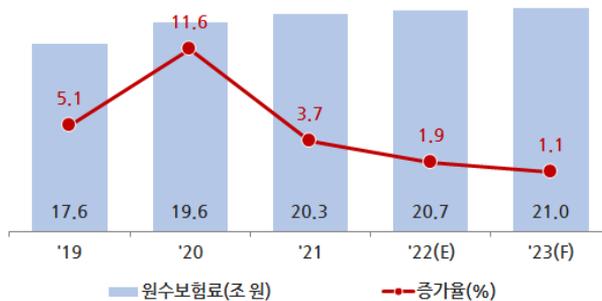
주: 보험연구원 추정치(E) 및 전망치(F)임  
 자료: 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 다. 자동차보험

○ 자동차보험은 자동차보험료 조정, 자동차 등록대수 증가 둔화, 온라인 채널 확대 등으로 전년 대비 1.1% 성장에 그칠 전망이다

- 2022년 상반기 자동차보험료 조정 효과가 2023년 상반기까지 지속될 것임
- 한시적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 종료와 자동차 반도체 수급 부족 등으로 자동차 신규 등록 확대의 어려움이 예상됨
- 보험료가 저렴한 온라인 채널 가입 확대와 운행거리 연동 보험 증가 등으로 대당 보험료 증가 효과도 제한적일 것임

〈그림 III-24〉 자동차보험 원수보험료 전망



주: 보험연구원 추정치(E) 및 전망치(F)임  
 자료: 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 라. 일반손해보험

○ 일반손해보험은 특종보험을 중심으로 전년 대비 5.9% 성장이 전망됨

- 화재보험은 일반 및 공장 화재보험 수요 확대 등으로 1.2% 증가가 예상됨
- 해상보험은 선박수주 증가와 수출입 물동량 확대 등으로 3.9% 증가가 전망됨
- 보증보험은 건설투자의 완만한 회복과 신용 관련 보증 수요 확대 등으로 2.5% 성장이 전망됨
- 특종보험은 책임보험 시장 확대와 종합보험과 기타 특종보험 등과 같은 신규 담보의 확대로 7.1% 성장이 예상됨

〈표 III-4〉 일반손해보험 원수보험료 전망

(단위: 조 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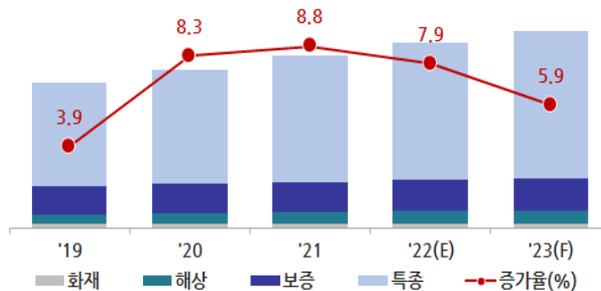
구분	2020		2021		2022(E) <sup>1)</sup>		2023(F) <sup>1)</sup>	
	보험료	증가율	보험료	증가율	보험료	증가율	보험료	증가율
일반손해보험	10.7	8.3	11.6	8.8	12.5	7.9	13.3	5.9
화재	0.3	1.6	0.3	15.3	0.3	0.5	0.3	1.2
해상	0.7	17.4	0.7	5.6	0.8	13.5	0.9	3.9
보증	2.0	5.0	2.0	0.0	2.1	3.5	2.2	2.5
특종	7.7	8.7	8.5	11.1	9.3	8.8	9.9	7.1

주: 1) 보험연구원 추정치(E) 및 전망치(F)임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그림 III-25〉 일반손해보험 원수보험료 전망

(조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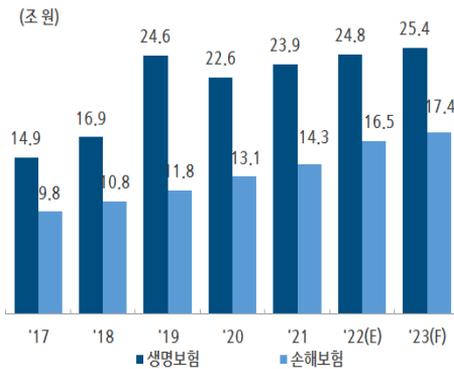
주: 보험연구원 추정치(E) 및 전망치(F)임

자료: 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 5. 보험권 퇴직연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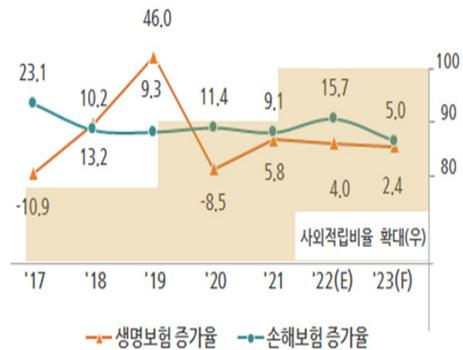
- 2023년 퇴직연금 수입보험료의 경우 생명보험 2.4%, 손해보험 5.0% 증가할 전망이다
  - 생명보험은 건진성 규제로 인한 자본부담 확대와 금융권 간 경쟁 심화 등으로 낮은 성장세가 예상됨
  - 손해보험은 일부 회사들의 시장 재진출로 소폭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됨
  - 노후소득에 대한 관심 확대와 IRP 시장 확대 추세로 퇴직연금 사업자들의 경쟁은 심화되고 있음

〈그림 III-26〉 퇴직연금 수입보험료 전망



주: 보험연구원 추정치(E) 및 전망치(F)임  
 자료: 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그림 III-27〉 사외적립비율 확대 및 수입보험료 증가율 전망



주: 보험연구원 추정치(E) 및 전망치(F)임  
 자료: 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금융감독원

# IV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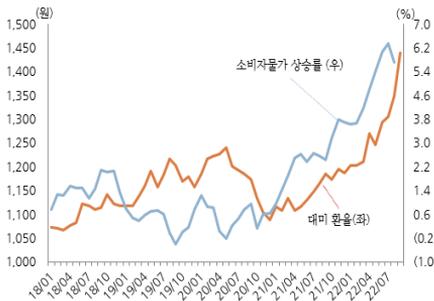
## 경영 및 정책 과제

### 1. 보험산업 진단

#### 가. 경기 불확실성과 보험시장 리스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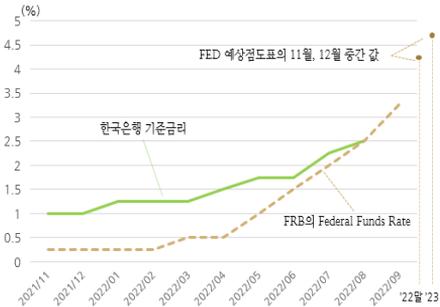
- 한국 경제는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삼고(三高) 환경에 직면한 가운데 경기침체 우려가 커지고 있어, 2022년 하반기와 2023년 상반기 보험산업 현안은 시장리스크 관리임
  -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6.3% 고점을 기록한 가운데, 대미환율은 1,400원을 넘어섰음
  - 글로벌 에너지 수급 불안과 중국의 경기둔화로 무역수지 적자가 지속되고 한·미 간 기준금리가 역전되어 환율과 금리가 급등하면서, 외환시장 변동성이 커지고 자산가격이 조정되는 가운데 취약가계 및 한계기업의 부실위험이 높아지고 있음

〈그림 IV-1〉 소비자물가 상승률 및 대미환율 추이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그림 IV-2〉 한은 기준금리와 미 연준 정책금리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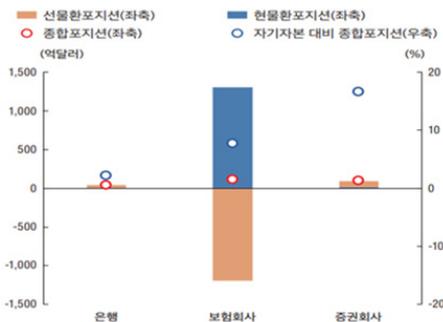
주: 한국은행은 지난 10월 기준금리를 3%까지 대폭 (0.5%p) 인상하여 미국과의 금리 격차를 줄임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미국, FED

- 고환율에 따른 해외투자 환헤지 비용 및 차환리스크 증대와 고금리에 따른 대출 관련 리스크가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향후 저축성보험의 해지 리스크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 상황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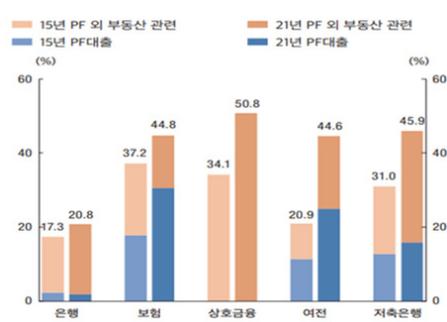
- 보험회사 대출의 경우 은행 등에 비해 취약차주 규모는 작지만 비중은 상대적으로 높아 잠재적 신용위험에 상당히 노출된 상황임
- 또한 부동산PF의 노출 위험도는 지급보증과 선순위 위주로 운용되어왔기에 현재로서는 높지 않으나, 부동산 경기침체 시 대규모 손실 가능성이 있음
- 한편, 고환율에 따른 환헤지 비용 증가, 1년 단위 퇴직연금 갱신과 2012년 보험시장 성장을 주도한 저축성보험의 만기 도래 등이 최근 고금리 환경과 맞물리면서 보험회사는 유동성 관리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그림 IV-3〉 국내 금융기관의 외환포지션



자료: 한국은행(2022. 6), 「금융안정보고서」

〈그림 IV-4〉 부동산 관련 기업대출 비중



주: 상호금융은 PF대출을 따로 구분한 자료가 없어 구분 없이 표시된 것임  
 자료: 한국은행(2022. 6), 「금융안정보고서」

## 나. 제도 불확실성과 새로운 규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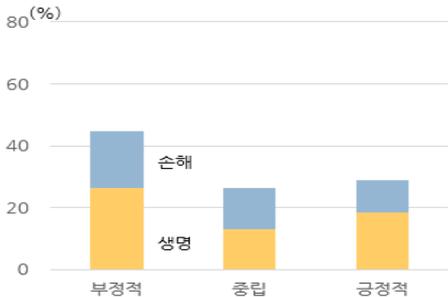
○ IFRS17과 ESG의 국제규범은 보험회사에 장기 시계(Time horizon)와 친환경·친사회 경영을 요구함

- IFRS17은 미래이익(Contract Service Margin; CSM)과 리스크에 관한 정보, 예정과 실적의 차이에 관한 성과 정보, 그리고 보험부채 적용 할인을 정보를 통해 보험회사에 장기 경영, 예정대로의 경영, 상품과 자산운용을 연계한 경영을 요구함
- IFRS-Sustainability는 보험회사의 투자와 언더라이팅 등과 관련한 ESG 리스크와 그 영향에 관한 정보공시기준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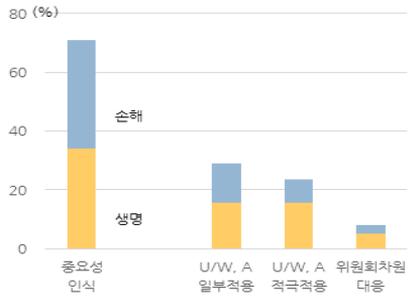
○ 그러나 새로운 규범이 제시하는 방향성은 익히 알려져 있으나, 그 규범을 준수하기 위한 준비와 그에 따른 영향에 대해서는 아직 충분히 파악되지 않은 것으로 보임

- CEO 설문 결과, CEO들은 IFRS와 K-ICS 준비는 잘 진행되고 있다고 응답하고 있으나, 금융시장 및 경제 전반의 불확실성이 증대되면서 도입 효과에 대한 전망은 긍정과 부정이 혼재한 상황임
- 한편, 대다수 CEO가 ESG를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나, 실제 시행에서는 아직은 일부 적용에 그치고 있고 회사별 편차도 큰 것으로 보임

〈그림 IV-5〉 IFRS17 도입 이후 물가와 금리 영향 〈그림 IV-6〉 탈탄소, 보험회사 인식과 실행 현황



주: 생명보험회사와 손해보험회사 CEO 총 42명 가운데 38명의 응답에 기초함  
 자료: 김세중·김유미(2022), 「2022년 보험회사 CEO 설문조사」, 『CEO Report』



주: 1) 생명보험회사와 손해보험회사 CEO 총 42명 가운데 38명의 응답에 기초함  
 2) 탈탄소는 중요성 인식 여부와 언더라이팅(U/W), 자산운용(A), 전사적 위원회 운영 여부에 대한 설문임  
 자료: 김세중·김유미(2022), 「2022년 보험회사 CEO 설문조사」, 『CEO Report』

#### 다. 수요 불확실성과 인구구성의 변화

- 기존 보험시장은 4~5인 가구가 개인보험의 주된 수요층이었으나, 인구구성의 변화와 함께 가구 구성이 변화하는 가운데 그들의 보장수요가 보험 수요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기 어려움
- 2020년 현재, 전체 가구의 2/3가 1인 가구 또는 2인 가구로 구성되어 있고, 4인 이상 가구는 전체 가구의 1/3에도 미치지 못함
- 한편, 중산층에 해당하는 소득 3분위 및 4분위 계층의 보험료지출이 처분가능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나, 보장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에도 불구하고 보험 수요로 이어지지 않는 것으로 보임
  - 중산층 비중이 추세적으로 감소하는 가운데, 공적 보조 등의 영향으로 소득이 낮은 1, 2분위 계층의 보험료지출 비중은 크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그림 IV-7〉 1인 및 2인 가구 구성의 변화



자료: 통계청

〈그림 IV-8〉 소득분위별 보험료지출 비중 변화



주: 2019~2021년 기간의 처분가능소득에서 보험료 지출이 차지하는 비율의 변화(소득 대비)와 소비 지출에서 보험료지출이 차지하는 비율의 변화(소비지출 대비)를 나타냄

자료: 통계청; 이태열(2022. 4. 4), 「최근 가구 구성별 보험료지출 변화의 특징」, 『KIRI 리포트』, 보험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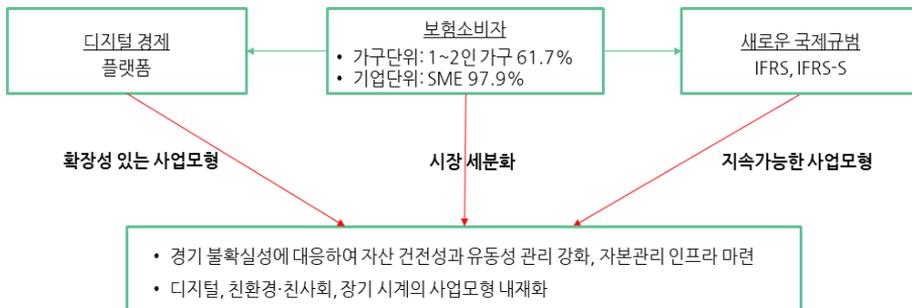
## 2. 경영·정책 과제

### 가. 복합 불확실성 대응

○ 보험산업은 경기, 제도, 수요의 복합 불확실성에 대응하여 단기적으로는 경기 불확실성에 대응한 시장리스크 관리에 주력하고, 장기적으로는 소비자의 구성 변화와 디지털(Digital) 전환 및 그린(Green) 전환을 사업모형에 내재화하는 작업이 필요함

- 디지털 경제의 산업 간 융합에 대응하여 시장 경계를 확대하고, 다양한 소비자의 니즈를 시장세분화와 유연한 조직으로 대응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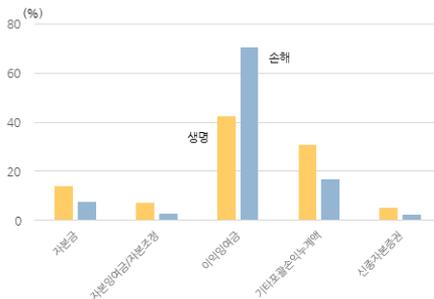
〈그림 IV-9〉 보험산업의 복합 불확실성 대응



## 나. 보험시장 리스크관리

- 경기 불확실성에 대응하여 자본관리와 보험금관리에 주력하며, 경제의 충격을 흡수하는 영역으로 역할 강화가 필요함
  - 고물가에 대응한 보험금 관리를 통해 안정적인 보험 공급을 도모해야 하며, 실손 건강보험의 사례를 교훈 삼아 시장규율을 적극 활용하여 시장왜곡을 최소화하고 취약계층의 보험가용성을 확대하는 민·관 협력이 필요함
  - 다른 한편으로, 금리 변동 등에 취약한 보험회사의 자본 구조를 재구성하는 작업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런오프, 계약재매입 등의 구조조정 인프라 구축이 필요함

〈그림 IV-10〉 보험회사 자본 구성



자료: 금융통계월보

〈그림 IV-11〉 실손보험 합산비율과 판매회사 추이



자료: 김경선·정성희·홍보배(2022), 「장수하는 고령사회, 준비와 협력(III): 건강보장 정책 방향」, 『CEO Report』, 보험연구원

## 다. 산업경쟁력 강화

- 시장 경계를 확장하고 상품과 공사협력모델에 대한 재검토를 통해 ‘시장포화’와 ‘보장 격차’에 대응할 필요가 있음
  - 현 보험시장은 개인보험과 국내에 한정된 시장 경계에서 벗어나 시장포화와 보장 격차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여 새로운 성장 기회를 찾아야 할 시점임
  - 1·2인 가구 중심의 소비자 변화에 대응하여 포괄보장형 방식의 시장 접근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

- 새로운 시장 진입을 활성화하고 다양한 형태의 유연한 조직을 허용하는 한편, 자율적인 구조조정을 용이하게 하는 시장 인프라를 구축하여 시장의 역동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 1사 다면허제 등 다양한 형태의 조직 구성을 가능하게 하는 가운데 위험을 분산 시키고, 디지털 환경에 맞는 기술기업의 진입을 통해 시장 활력을 높이면서도 공정경쟁의 토대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IFRS와 ESG 등 새로운 국제규범이 제시하는 장기 시계의 경영과 시장규율, 그리고 시장 규율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금융당국 간 공사협력모델을 만들어갈 필요가 있음
  - 보험회사는 디지털 전환을 통해 사업모형의 확장성을 확보하는 한편, IFRS와 ESG를 통해 지속가능한 사업모형을 내재화하는 작업을 지속해야 할 것임
  - 새로운 국제규범은 시장규율을 강화하는 기초를 마련할 것이며,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시장규율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보험시장의 혁신을 유도하는 한편, 도적적 해이를 최소화하면서 소비자 보호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그림 IV-12〉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확장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장포화) 개인보험, 국내보험에 한정된 시장 경계 확장</li> <li>• (보장격차) 포괄보장, 공사협력모델에 대한 재검토</li> </ul>
	역동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진입) 빅테크/인슈어테크 비교, 1사다면허제, 판매채널 수수료</li> <li>• (자율적 퇴출 및 정리제도) 런오프 및 계약재매입 제도, 부실보험회사 지정 및 정리 제도</li> </ul>
	지속가능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장규율) 새로운 국제규범 관련 평가 및 공시</li> <li>• (소비자신뢰) 분쟁 사례연구, 분쟁조정절차 개선</li> </ul>

## 도서회원 가입안내

회원	연회비	제공자료	
법인 회원	₩300,000원	- 연구보고서 - 기타보고서 - 연속간행물 · 보험금융연구 · 보험동향 · 해외 보험동향 · KOREA INSURANCE INDUSTRY	영문 연차보고서 추가 제공
특별 회원	₩150,000원		
개인 회원	₩150,000원		

\* 특별회원 가입대상 :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공도서관 및 대학도서관



### 가입 문의

보험연구원 도서회원 담당

전화 : (02)3775-9113 | 팩스 : (02)3775-9102



### 회비 납입 방법

무통장입금

- 계좌번호 : 국민은행 (400401-01-125198) | 예금주: 보험연구원



### 자료 구입처

서울 : 보험연구원 자료실(02-3775-9113 | lsy@kiri.or.kr)



## | 저자약력

### <전망>

- 김세중** 한양대학교 경영학 박사 / 연구위원  
E-mail : sjkim@kiri.or.kr
- 최원** 경희대학교 경영학 박사 / 수석연구원  
E-mail : kinowon@kiri.or.kr
- 김혜란** 건국대학교 경영학 석사 / 연구원  
E-mail : hrkim@kiri.or.kr
- 김유미** 성균관대학교 보험계리학 석사 / 연구원  
E-mail : yumi\_kim@kiri.or.kr
- 김윤진** City, University of London 보험계리학 석사 / 연구원  
E-mail : yoonjinkim@kiri.or.kr

### <과제>

- 김해식** St. John's University 경영학 석사 / 연구위원  
E-mail : haeskim@kiri.or.kr
- 황인창** KAIST 경영대학원 경영공학(재무) 박사 / 연구위원  
E-mail : ichwang@kiri.or.kr
- 노건엽** KAIST 이학(통계학) 박사 / 연구위원  
E-mail : gynoh@kiri.or.kr
- 박희우** KAIST 경영공학 박사 / 연구위원  
E-mail : hwpark@kiri.or.kr

연구보고서 2022-18

## 2023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발행일 2022년 11월
- 발행인 안철경
- 발행처 보험연구원
-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6길 38 화재보험협회빌딩
- 인쇄소 고려씨엔피

ISBN 979-11-89741-89-1  
979-11-85691-50-3(세트)

(정가 10,000원)